

□ 試鍊 속의 中國 國有 改革¹⁾

- 국유개혁의 지체는 세수감소, 은행의 불량채권 누증을 통해 재정·금융 개혁의 지체를 조장함
- WTO 가입에 따른 외국과의 경쟁 격화는 국유기업 적자를 더욱 확대시켜, 기업-재정-금융 3대개혁의 난관으로 작용함
- 향후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고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 실시와 함께 개혁의 심화가 관건임
- 그러나 체제 개혁은 단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딜레마가 있음

○ 국유 개혁

- 중국 체제 개혁

- 기본 방식: 雙軌制, 즉 계획경제를 온존시키면서, 시장경제의 지배 영역을 점차 확대해가는 점진주의적 방식
- 국유기업 생산이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년 8할대에서 최근 3할대로 축소
- 그러나 이는 거꾸로 국유기업이 비국유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, 경영상태가 악화됨을 의미함(98년 국유공업기업의 자산채무비율은 65%를 초과)
- 84년 이후 국유 기업 개혁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, 국유기업의 적자는 오히려 확대됨
- 계속되는 국유기업의 경영 악화를 개선시키기 위해 抓大放小 정책과 주식제 도입을 실시함

- 抓大放小 정책(96.12 결정)

- 抓大: 국유기업 중 중요산업 1,000여 개의 大型基幹企業을 선정하여 기업 채무의 감면 또는 면제,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저리 융자, 합작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을 집중 실시

1) 이 글은 渡辺利夫(東京工業大 교수)의 「中國「國有改革」, 試鍊一段と」(日本經濟新聞, 3월 2일)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

- 放小: 大型基幹企業 이외는 시장 기능에 맡겨 민영화(파산, 자산 매각, 흡수 합병 등의 방법)
 - 문제점: 국유기업의 채무 과다로, 민영화가 용이하지 않음.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음
- 주식제 도입(97.9 제15회 공산당대회에서 제기)
- 효과: 주주가 경영을 감시하는 메카니즘 및 경영 효율 개선 압력 발생
 - 현 제약 요인: 이데올로기 제약 때문에 중국 정부는 國家株를 주로 하고, 국가주의 시장 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유보 조건을 붙임
 - 현재 풍부한 저축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를 주주로 만들지 않으면, 주식 시장 형성은 불가능함

○ 국유 개혁에서 파생되는 재정·금융 문제

- 재정 비중의 감소
- 국유기업 개혁과 직접 관련된 개혁이 재정·금융 개혁임
 - 중국의 재정 수입은 국유기업의 법인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, 국유기업의 경영 부진은 재정 수입 및 지출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음
- 재정의 금융화
- 재정 수입 감소에 따라 재정 지출을 축소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재정 보조를 금융기관 용자로 전환시킴
 - 긍정 측면: 재정 주도 자원 배분에서 금융 중개를 통한 자원 배분으로의 전환
 - 부정 측면: 재정 부족을 은행 용자가 대신함으로써 부실국유기업의 파산 지연
- 은행의 불량 채권
- 중국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규모는 용자 총액의 25~30%로 알려짐
 - 총투자의 7할이 투자되면서도 총생산에서 불과 3할만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용자가 계속된다면,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는 필연적임

○ 국유 개혁에 따른 黨의 정치적 지도력 약화

- 국유기업 개혁의 걸림돌 중 하나는 실업의 급증임
 - 실업보험, 의료보험, 양로보험 등 사회 안전망이 미정비된 상황에서 실업자의 양산은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음
- 黨의 정치적 지도력 약화 가능성
 - 실업 급증을 우려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당권력의 기반이 이전에 비해 약체화되어 있기 때문임
 - 개혁 과정에서 중국 사회는 현저하게 다원화되었으며, 말단, 중견 당원의 관심은 정치에서 경제로,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음
 - 이러한 상황에서 抓大放小·주식제의 무리한 추진은 국유기업내 黨委員會의 정치적 약화 → 당의 정치적 지도력 약화로 나아갈 수 있음

○ 중국 경제의 향방

- 중국은 올해 목표를 내수 확대 및 서부 대개발로 삼음
 - 중국은 올해 목표를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내수 확대 및 장기적 수요 창출을 위한 서부 대개발로 잡고 있음
- 중국 경제는 개혁 심화 및 적정 성장의 조화가 핵심 과제임
 - 중국 정부의 딜레마는 개혁 심화가 단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임
 - 그러나 WTO 가입에 따른 외국 기업과의 경쟁 격화는 국유기업, 재정, 금융이라는 3대 개혁을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외부적 환경을 만들고 있음
 - 따라서 개혁 심화와 적정 성장의 조화가 중국 경제의 핵심 과제이나, 올해 국유 개혁은 점진적인 형태를 취할 것이며, 급작스런 국유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

(황동언)